

디앤씨미디어, 3Q 매출액 186억 원 기록... 분기 사상 최대 실적

- ▶ 전년비 매출액 19.9% ↑ 영업이익 13.6% ↑ 매출액 및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
- ▶ 웹툰 신작 출시 및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대

<2021-11-15> 디앤씨미디어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웹소설·웹툰 Contents Provider 디앤씨미디어(263720, 대표이사 신현호)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액 186억 원, 영업이익 42억 원을 달성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9.8%, 영업이익은 13.6% 증가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하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당기순이익은 더앤티 지분 추가 인수로 인한 투자자산처분이익 인식으로 전년 대비 114.2% 증가한 63억 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웹소설 및 웹툰의 지속적인 신작 런칭과 더앤티 인수를 통한 연결대상회사 편입, 카카오웹툰 리뉴얼에 따른 신규 작품 공급을 확대한 점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디앤씨미디어의 전체 매출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1%에서 2020년 49%로 늘어났고 올해 3분기에는 60%로 확대됐다. 신작 런칭과 지속적인 연재로 구독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통해 향후 매출 성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도 기대된다. 현재 디앤씨미디어는 중국과 일본, 북미, 동남아 4개국 및 프랑스 등 12개국에서 총 30편의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기존 진출 지역에는 연재 플랫폼 확대를 계획 중이며, 유럽과 남미 등 신규 지역으로는 진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수출 비중은 2019년 11%에서 2020년 28%, 2021년 3분기 37%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디앤씨미디어 신현호 대표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분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업 쪽으로 유리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가치 있는 IP의 발굴과 기획, 적극적인 OSMU,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해 지속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디앤씨미디어 2021년 3분기 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3Q	2020.3Q	YoY
매출액	18,636	15,549	19.9%
영업이익	4,235	3,727	13.6%
당기순이익	6,341	2,961	114.2%